

“정신차려, 민주당”

DJ 이후 되레 분열... 호남 유권자들 질타 여론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등원을 선언하고 정세균 대표가 30일 민주진영 연대와 2012년 재집권을 위한 기반조성을 천명했지만 한나라당의 총청권 잡자, 민주당내 친노세력의 이탈 움직임 등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인 대통령과 화해의 정신을 살려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3개월 동안의 서거정국을 마무리 짓고 재창당 수준의 ‘통합과 혁신’ 노력을 통해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은 물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친노 신당 세력 및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 및 통합 움직임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 수뇌부가 별다른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감한 기동력 포기를 전제로 이미 시작된 야권의 계파별 주도권 경합을 병행하고 진보진영과

지 아우를 수 있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 애도기간 마지막 날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100주에 참석했다 귀경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 개혁진영의 통합과 혁신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혁신과 통합의 3대 목표로 ▲이명박 정권이 초래한 3대 위기 극복 ▲민주개혁 진영을 포괄할 연대를 제공 ▲2012년 민주개혁 정부 수립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민주당 내부로는 ‘통합과 혁신 위원회’를 발족하고 외부적으로는 ‘민주지도자회의(가칭)’의 구성을 각각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어 통합의 우선순위와 관련, “소위 ‘친노 세력’이 우선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함께 했던 전문가 집단 및 관료집단,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 순으로 나열했다.

당 밖에 마련되는 민주지도자회의와 관련, 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야4당과

시민사회가 연석회의를 통해 상설적으로 연합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이 같은 대통합과 민주진영 외연확대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각종 정책을 통해 총청권 구애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있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우세를 거의 확실시 해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후 패이던 적통(嫡統)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김 전 대통령의 묘지 흙도 마르기도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 기류인 친노신당 논쟁에 휩싸여 있다. DJ 없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유권자들에게 어필 할 만한 참신한 정치신인 들의 영입도 없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소득없는 장외투쟁은 민노당의 2중대와 같고 정책대결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는데다 당까지 쪼개진다면 가망이 없다”며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연이은 승전보를 전하는 KIA의 경기에 관중이 몰리면서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이 벌어진 잠실구장에 3경기 연속 매진 기록이 작성됐다. 30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KIA-두산전에서 KIA 팬들의 노란색 물결이 관중석을 뒤덮었다. (스포츠조선 제공)

행복하다, 8월의 ‘야구 드라마’

KIA 연일 극적 승리 연출 침체된 호남인들에 활기

KIA 타이거즈가 8월을 뜨겁게 달구었다. 〈관련기사 18면〉 KIA 타이거즈는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장성호의 통쾌한 역전 만루홈런을 앞세워 6-1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KIA는 8월 한 달 동안에만 20승을 수확하며 한국 프로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20승 고지를 밟았다. 지난 2일 홈에서 삼성을 제압하

며 2천516명의 관중이 몰려오며 KIA는 12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11연승을 달리며 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1위를 차지한 후 무서운 기세로 상승장구한 KIA는 20승 4패의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8월을 마무리했다. KIA는 예전 해태시절의 호쾌한 불방망이를 되살려 냈다. 한달 동안 15개의 홈런포를 날리

며 38타점을 만든 김성현은 KIA 타선의 중심에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타진 세 개의 만루홈런은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9일 SK와의 경기에서 김원섭의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으로 군산을 열광시켰던 KIA는 21일 SK와의 재대결에서 나지완의 대타 만루홈런으로 또다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30일 장성호의 역전 만루홈런으로 20승을 채우며 8월 대장

정을 극적으로 마무리 했다. KIA 연승 드라마에는 빈틈없는 마운드도 한 몫 했다. 8월 한 달 KIA의 마운드는 3.73의 방어율로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거침없는 KIA의 질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잃은 호남인들의 허전한 가슴을 달래주며 한 여름 청량제 역할도 톡톡하게 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 靑 개편...개각은 내달 4일까지 단행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통합형 인적 해신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31일 청와대 참모진이 개편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개각이 단행된다.

〈관련기사 3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개편과 인선 내용은 내일 발표하겠다”며 “개각은 당초 청와대 개편과 함께 주초에 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늦어져 내달 4일까지는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이날 탈당과 함께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이 대변인은 “심 대표를 한때 유력한 (총리)후보로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없던 일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 대표의 차기 국무총

리 기용 카드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호남 총리’ 발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3~4명 정도를 복수로 검토 중에 있다”며 “통합과 화합, 도덕성이 주된 개념이고 검증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각과 관련, “개편의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중폭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안다”면서 “당 출신 임각은 소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日 민주당 압승

54년만에 정권교체

일본의 8·30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300석 이상을 획득하면서 집권 자민당을 대파하고 54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관련기사 5면〉

NHK는 30일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이 298~329석을 얻으며 84~131석을 얻는데 그친 자민당을 완파하면서 차기 정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또 교도통신도 민주당의 300석 이상 압승을 점쳤다. /연협뉴스

재래식
한국정 / 된장 / 조식 / 향미향
가정용 · 업소용 판매
산水土風
온정적입니다.
소비처 (061)381-9893
상설 010-6586-0001
•보통건강음식 위생관리, 성업중
•해인필 문의 상담 환영

원료 갤러리
한희원 작 '은행나무가 있는 언덕'
그의 작품에서는 바람의 흔적이 느껴진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가 언덕을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였다. 해질녘 은행나무의 황금빛은 볼 꺼진 마음의 창과 허전한 지붕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서정적인 화풍으로 깊은 밤과 고즈넉한 마을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는 그는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푸른 밤하늘과 시적인 풍광을 형상화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 출신으로 14차례 개인전과 오지호 미술상 기념전, 한국현대미술의 투영전 등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그룹 '새벽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더리' '무등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일보 홈페이지(http://www.kwangju.co.kr/)를 통해 작가의 보다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 오리지널 버전 최초 광주공연
Jekyll & Hyde
티켓박스 오픈
오늘 오후 2시!!
2009. 10. 24(화) - 25(수)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www.kwangju.or.kr